



# 의과대학이란 어떤 곳 인가?

■ 이 순 형

## 기생충학교실의 뒷 이야기

### 1. 머 릿 말

이제 얼마 안있어 또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의 문을 들어서게 될 것이다.

우선 의과대학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과대학생활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막연한 동기나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서 대학을 지망하고 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상 이들이 지망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며 졸업후의 진로가 어찌되는지, 또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지를 따져 볼 겨를이 없이 유행병처럼 너도 나도 대학의 문을 두드

린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재수생으로 삼수, 사수를 하면서 천금같은 청춘을 소모하고 있는가 하면, 실의와 좌절에 빠져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저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으니 실로 큰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 입학한 다음 전공학문이 당초에 생각하던 바와 크게 다르다든가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지않아 전과를 하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심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작업이 단시간내에 큰 성취를 이룬 원인으로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들기도 하고 사실 높은 학력이 이에 기여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런 높은 교육열은 앞으로도 적극 장



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더 큰 국가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대학졸업자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선택하여 성실하고 즐겁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일꾼들이 사회의 각계 각층을 이루면서 조화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사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른바 교육의 평준화라 하여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개인적 차이를 무시하고 똑 같은 틀속에서 똑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뜻보면 민주적인 듯 하나 사실은 불합리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참된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할 때 개인차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과 소질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대학에 가야하는 것이 민주화요 평준화는 아니다.

다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취된 바 있다. 따라서 가령 대학에 입학하였다 하여 크게 자랑할 것도 없으려니와 또 대학입학에 실패하였다 하여 목숨까지 끊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항로를 선택하였다는데 불과할 뿐이며 항로는 대학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는 그다음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어려서부터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보여 무턱대고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과대학을 지망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 의대에 불합격 되어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계에 투신하고 보니

이것이 더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에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일약 우수한 실업가나 대재벌로 대성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 학생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이 의사로서 보다 실업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 2. 대학진학 지도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능계통이나 체육 계통은 소질을 대단히 중요하게 인정하여 이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타의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이 학생 당사자의 의사나 교교선생님들의 추천(이것은 아마도 거의 고등학교 성적에 따라 배정한다고 생각됨)에 따라 쉽게 결정해 버리는 수가 많다.

그리고 대학 진학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예비고사 제도뿐이어서 예비고사 성적에 따라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또 대학측에서도 아무런 선택의 자유가 없이 싫으나 좋으나 예비고사 성적에 따라 학생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선택 결정하는 것 같이 무모한 모험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에서나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진학 지도에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을 기하며 또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대부분 고등학교의 최우수 성적 보유자들, 또는 일반대학의 우등생들) 가운데 장차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에 적합한 성격의 소유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 성격을 분석하는 검사를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학자등 관련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이 검사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능은 대단히 높으나 성격이 상자라든지 정신병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맡아보는 위험은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만 말하자면, 예비고사 성적이 우수하기만 하다면 성격이 잔인하다든가 포악함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졸업후에 수술 칼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의대에 입학한 후 해부학 실습 때 사체를 해부하거나 또는 수술 견학중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진학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망하는 대학이나 전공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일과 그 전공이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지를 판정해 주는 일인 듯 하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전공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추천하는 곳도 많은 듯하다. 소질과 능력이 그 전공에 맞는지를 판정해 주는 전문기관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들의 강력한 욕망인데,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못다 한 것을 계승토록 강요함으로써, 설사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올바르게 진학 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전공에 등을 밀어 넣어 결과

적으로 건강하고 착한 자녀를 폐인을 만  
들기도 하는 것이다.

〈필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바른건강생활 ■

### 1. 감기에 걸렸을때

#### ●증 상

- 가. 감기가 오는 첫 신호는 코안이나 목안이 바짝 마른 듯하고 간질간질한 자극의 느낌이 든다.
- 나.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반나절내지 사흘후에 본격적인 감기 증상이 오는데 즉, 미열이 나고 몸이 떨리며, 피로감이 든다.  
이러한 증상은 감기 첫날과 이튿날 가장 두드러진다.
- 다. 원인균의 침범 부위에 따라 콧물이 흐르거나 가래가 나오거나, 재치기, 기침 등을 하기도 한다.  
대개 5~10일 이면 회복된다.

#### ●가정 간호

- 가. 떨리면서 열이 나거나, 급격히 체온이 오른다던지, 숨쉬기 곤란해하거나,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등의 위험신호가 나타나면 폐렴의 초기 일지도 모르므로 즉시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 나. 2차적인 박테리아의 감염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 다. 아스피린은 머리가 아픈 것과 몸살 기운을 없애주며 열도 떨어지게 한다.
- 라. 감기에 다시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손수건 보다는 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마. 제일 좋은 치료법은 감기 초기에 푹 쉬도록 하는 것이다.

#### ●예 방

- 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는다.
- 나. 감기에 걸린 사람 특히 기침이나 재치기를 하는 사람과 멀리하며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을 삼가한다.
- 다. 기후에 맞추어 너무 춥거나 또는 너무 더워, 땀이 나지 않도록 옷을 알맞게 입고 특히 발이 항상 마른 상태이어야 한다.
- 라. 너무 더운 방이나,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앉아 있거나 쓸데없이 떨게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마. 알맞게 쉬고 충분히 잠을 자야 하며, 과로해서는 안된다.